

008/200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1. 법률 + 철학지문 특징

2. 동양사상 전반 흐름 정립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유학 : 성인-성학-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p>	<p>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p>
<p>2 수기-수양론 / 치인-경세론 유학의 기반 : 이기론 이 : 원리 / 기 : 물질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실제로 존재</p>	<p>동양 *이기론 *유학 : 수신→제가→치 국→평천하</p> <p>1단락 유학 전반 정보 정립</p>
<p>3 수양론 : 이통기국 즉, 이기론 바탕 자기 수양 수신제가치국평천하</p>	<p>2단락 수기-수양론 치인-경세론 그 배경으로 이기론 정립</p>
<p>4 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울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p>	<p>3단락 이기론 바탕 수양론</p> <p>4단락 이기론 바탕 경세론 '법제개혁론'</p>
<p>5 조선의 법제 수교 ⇨ 록 (기) ⇨ 대전 (이)</p>	<p>5단락 조선의 법제</p>
<p>6 조선의 법제 이 : 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헌</p>	<p>6단락 이 : 유지 = 대전... 기 : 변혁 = 나머지</p>
<p>7 결론 정리. 이 : 유지 기 : 개혁 이 : 조종성헌 기 : 조세법령, 폐단법령, 부당한 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p>	<p>7단락 현실적용 이 : 대전, 조종성헌, 삼강오륜, 어진정치, 양법미의 유지 vs 기 : 폐단, 조세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 주장</p>

여기까지 글 전체 흐름을 보았고, 이어서, 법률 지문의 특징 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지식적 측면에서 다루는 흐름은 없으나, 법학에서 기본 지식임과 동시에, 지식체계 형성과 평가원 법률 지문 구조 설계에 영향을 끼치니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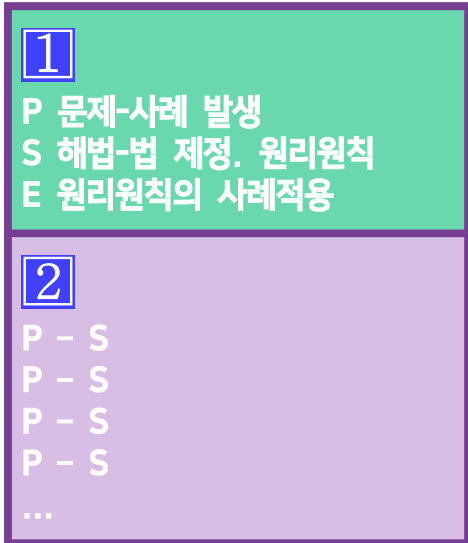
간단히 다룹니다. 제대로 다루자면 전공책 한권이에요. 간단히 다루는 과정에서의 정보 생략으로 인한 완결성 부족이 있으니, 관련해서 대학 진학하고 나서 더 공부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특징	로마법 기반	보통법 (common law)	사회적 관습이 법 역할	종교 규범이 법 역할
형태	성문화된 법	판례가 법	불문법	경전
구분	'글(文)'로 정립된 법체계	'판례'로 정립된 법체계	'사회적 관습'으로 정립된 법체계	'종교 교리'로 정립된 법체계

특히, 지금 주류 법체계는

	대륙법	영미법
특징	로마법 기반	보통법 (common law)
형태	성문화된 법	판례가 법
구분	'글(文)'로 정립된 법체계	'판례'로 정립된 법체계
주요국	대한민국	미국, 영국
장점	성문화되어 있으므로 원리원칙 명확	판례 중심으로 변화, 사회적 요구에 유연
단점	변화, 사회적 요구에 경직적	원리원칙이 불명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평가원 법 지문의 글의 구조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P 문제, 사례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S 해결과정에서 원리원칙 확립 = 법 성립됩니다.

이제 그것을

E 사례에 적용하면서 하나의 정보군집이 끝납니다.

위 지문도 마찬가지로

유교-이기론을 바탕으로

법제개혁론이라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종성현은 유지하고

기에 해당하는 폐단은 교정하는 현상 적용에 이릅니다.

철학 - 법학 융복합 지문이라 이 정도에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법률 지문이 나온다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2

대륙법의 한계,

사례, 현상 적용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글의 구조가 정립됩니다.

p - s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10번 넘게도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보량이 터지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들 헤메는데,

ps, ce구조만 잘 잡아줘도, 발췌독 과정에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선지, 핵심 정보가 전부 그 위에 있습니다.

법률 지문은 추후 또 다루고

다시 철학지문 흐름으로 옵니다.

아래의 흐름 기억나시죠.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경험론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기출	2018-6월		2018-수능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유교, 이기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이쯤에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수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동양 사상의 가치도 있습니다.

제가 가치 판단할 주제는 아니니 이쯤 하고, 다시 지문에 연결합니다.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첫 단락에서는 여러 생각 말고 주제가 무엇인지 집중합니다.

이러한

뒷 문장이 정보 가치 높습니다.

물론 주제는 율곡 이이로 넘어가지만

도입은 유학의 이념입니다.

사실, 유학에 대한 기출 연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지문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출 흐름, 배경지식을 잡아드렸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구조 설계라도 잡았다 보면 보입니다.

수기치인

- 수기 - 자신을 닦는 일

- 치인 - 통치

한자어 바탕 어휘 바탕 추론하면 충분히 핵심정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천도 - 합일 - 성인 - 성학

아! 정리하면 자신을 갈고 닦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즉, 수기치인을 하는 학문. 유학. 그 유학의 사상이 베이스!

라는 흐름은 충분히 잡힙니다.

특히!

1단락 수기 - 2단락 수기 - 수양론 - 3단락 수양론

흐름과

1단락 치인 - 2단락 치인 - 경세론 - 4단락 경세가 - 법제 개혁론

이 흐름을 잡았으면

1단락 역할

2단락 역할

3단락 역할

4단락 역할

구조가 보이며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명확해지며, 평가원의 설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쓸데 없이

정보완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에 집착하다

시간 지연,

논리 비약,

정확한 이해의 어려움등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통 말하는 '독해력'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1
 유학 : 성인-성학-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

이어지는 2단락 봅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 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과거 일반적이었던 설명문 구조로 보면 집중할 부분이 이기지묘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평가원 흐름을 보게되면, 사실 2단락 내용은

1단락의 유학 세팅을 바탕으로

2단락에서 유학의 방법론인 이기론 설명이라는 것을 잡아야합니다.

그것을 '이기지묘'라고 한다고 해봐야
 그 정보는 활용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반면,
 이기론에 집중하면,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이 핵심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이 조선의 법제의 철학이 됩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 결국
- 1단락 유학
- 2단락 이기론
- 3단락 수양론에서
- 4단락 경세론으로 흐름을 잡겠다는 구조가 보입니다.

쓸데없이, 거경, 궁리, 역행...
 그 세부 내용은 단기기억 한계로 기억하기도 힘들고,
 단순 정보 확인 수준의 문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시대인데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의도는 이기론 바탕, 수양론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흐름.
 즉, 기는 현실-대상-사물의 병폐가 나타나니,

도덕, 이상인 '이'로서 다스려야한다는 의미.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제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의 주제 단락입니다.

이기론을 바탕으로 경세론, 법제개혁론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어려운 정보는 아닌데

구조를 못 잡고 정보 하나 하나에 어그로 끌리면 상당히 피곤해 집니다.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준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교정대상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법은 그대로

기에 해당하는 법은 개혁을 하자고 합니다.

동시에

Q-A 구조

국왕의 물음과, 그 대답

이라는 주제 구조 흐름도 잘 봐드립니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이라는 주제 구조 흐름도 잘 봐드립니다.

조선의 법이 형성되는 흐름인데, 작은 따옴표 중심으로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수교 - 록 (기) - 대전 (이)

1단락 유학

2단락 이기론

3단락 유학-이기론-수양론

4단락 유학-이기론-경세론-법제개혁론

5단락/6단락 유학-이기론-경세론-법제개혁론-조선의 법제

이 흐름! 정보 별 것 없습니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5단락은 수교 - 록 (기) - 대전 (이)

6단락은 (이)에 해당하는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헌, 대전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이 (위리 원칙)	기 (교정대상)
7단락	조종성헌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조세법령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부당한 법령
전체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헌	수교, 록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이 흐름을 잡습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문제가 아니라,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1단락 소주제. 유학에 대한 정립. 물론 불안하면 추후 발췌독.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단어 외리가리로 찾자면, 1단락 끝 부분 바탕인데, 정보가 있는 그대로 없으니 다른 단락에 좀 더 정확한 근거 찾아 없으면 결국 적당히 2번... 이게 뭔짓입니까?

이제 좀 그만.

주제가 유학-이기론-수양론-경세론. 당연히 그렇겠죠.

필요시 발췌독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조선의 법제입니다. 수교라는 소주제 키워드 정보확인.

역시 필요시 발췌독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선의 법제. 대전. '이'에 해당하니 당연. 필요시 발췌독.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4-5번 선지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둘 다 대전인데 하는 이, 하나는 기에 대한 설명.

바로 정답.

보이지죠? 바로 주제 => 정답 집중. 판단.

	이 (원리 원칙)	기 (교정대상)
7단락	조종성헌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조세법령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부당한 법령
전체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헌	수교, 록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주제. 유학-이기론에 대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구분됨 + 더불어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확인 됩니다!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기는 현상이고,

이가 법칙인데?

2번 정답 끝!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수기치인. 1단락 소주제.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결국, 소주제들입니다. 바로 확인 됩니다!

1
유학 : 성인-성학-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

2
수기-수양론 / 치인-경세론
유학의 기반 : 이기론 이 : 원리 / 기 : 물질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실제로 존재

3
수양론 : 이통기국 즉, 이기론 바탕 자기 수양
수신제가치국평천하

4
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율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

5
조선의 법제 수교 ⇨ 록 (기) ⇨ 대전 (이)

6
조선의 법제 이 : 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헌

7
결론 정리. 이 : 유지 기 : 개혁
이 : 조종성헌
기 : 조세법령, 폐단법령, 부당한 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

② '이기치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수기 치인...이 대립과 분리?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기-수양론 그리고 이어지는 치인-경세론이 모두 이기론 바탕인데? 대립적? 틀렸쥬?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4단락 초반부 정보군집 주제! 바로 정답!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역시 동양 사상에서 멈추지 않고

서양까지 비교대조 겁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결국 여기도 이기론. 아까잡았던 내용 인출합니다.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기출	2018-6월		2018-수능

아마도 차이점이 가장 부각되고, 결국 차이점 문쥬군요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바로 정답! 끝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여기까지 1~4단락

유학-이기론-수양론-경세론 이라는 이론적 배경

여기부터 5~7단락

유학 원리를 법제개혁에 적용합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정리한 주제 내용 그대로 보이죠?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바로 정답.

4단락 구조 잡았다면,

윗부분 도입부의 구조가 보이면서 바로 정답이 보일텐데!

4

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율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잘못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5번 선지 정확한 후반부 주제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식적 차원에서의 판단과,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적용하는 전형적인

지문 원리 - 보기 사례 적용 유형입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경국대전 - 대명률의 형법 : 이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 이 (관리 형벌 남용 죽음 - 곤장 100대)

vs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경국대전 - 대명률(이) (살인 = 사형)

두 개념이 대립되죠?

1

당연히 조선 유학-이기론을 따르고,

이는 유지 기는 교정 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유학의 기본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로 이어질 것이냐

(나)로 볼 것이냐

2

관리의 잘못을 부각하고 싶으면 (가)-(다)로 이어질 것이고

관리를 보호하고 싶으면 (나)로 갈 것입니다.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정답 끝!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ㄴㄴ 경국대전 = 이. 지켜야죠.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대전에 대명률 따르라 되어 있으니 '이'유지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가)(다)흐름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옳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다고 경국대전 (나)가 '이(양법미의)'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죠.

이 vs 이

상황에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지

이미 '이'인 '대전'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그렇다면 (나)로 갔습니다.

상식적 차원에서의 사고.

철학 - 법학 통합지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융복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현재 학생들이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융복합이 아니라,

각각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제 서양 사상흐름이 나옵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 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치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제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율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성인군자
- 1단락 소주제, 배경지식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상식**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1단락 소주제 이해**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기론 법률 적용**

상식
배경지식

성인군자

수양론

이기론

비교
대조

수양론

경세론

이기론
전제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원리**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더불어**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제론은 모두 **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제**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이**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발체독**

동 VS 서 비교,대조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윗글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윗글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윗글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윗글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윗글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주제+전개방식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주제**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Q**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구조,전개방식**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이**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이**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이**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충돌(가,다 VS나)**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이**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이**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이**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